선재동자 없고 매화 핀 수월관음도



선재동자가 없고 배경에 매화를 그려넣는 등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김민서 화가의 수월관음도.

김민서 불교미술작가의 '관세음보살 특별기획전'
12월1일~31일 동화사 법화보궁갤러리

기존 도상 탈피 새로운 시도
"보살의 형상 아닌 마음 그리고 싶어"

대자대비로 기억되는 관세음보살은 고해 대중이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미술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그리는 일은 단순히 미술이 아닌 신심의 발현이며 수행의 일환이다. 붓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깊은 신심과 간절한 원력 없이는 여법한 관음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음도를 만난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동화사 법화궁갤러리에서 열리는 김민서(지원 불교미술연구소 소장) 불교미술작가의 관세음보살특별기획전이다. 김민서 화가의 4번째 개인전인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는 관음도 20여 점은 김민서 화가가 1년 6개월 동안 신심과 원력을 붓 끝에 모은 것들로서 새로운 형식의 관음도다.

"대자대비하신 보살의 실천적 자비행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일기 시작했어요.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아닌 본래면목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서양미술을 전공한 김민서 화가는 모태 안에서 불교를 시작했다. 그는 화가로서 자신의 내면을 보다 밀도 있게 쏟아내기 위해 동국대 대학원에서 다시 불교미술을 공부했다. 그리고 30여 년 불화를 그려왔다. 어느 날 마주한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에 원력이 일었다.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을 그려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보살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의 그 자혜로운 마음을 그려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력이 되었죠. 그리고 행복이 되었죠. 일생동안 보살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그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원력입니다."

김민서 화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불심을 완성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그 중 하나가 관세음보살이며,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그린다. 자신이 들여다본 관세음보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관세음보살을 그린다.

또한 많은 대중에게 관세음보살의 자혜로운 모습을 전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생각들을 시도했다. 김민서의 수월관음도 배경엔 매화가 피어있고 선재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도상에 얽매이지 않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에 집중했으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채색을 시도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시도했다.

관세음보살은 법화변상도의 성중이다. 그래서 아미타변상도 속의 협시보살로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음신앙이 보다 강조되고 독립적인 신앙의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독립적인 불화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생이 그린 '백의수월관음화', 복령사 수월관음화, 서구방과 혜허, 그리고 김우문이 그린 수월관음도, 무위사 '양류관음도', 도갑사 '삼십이관음응신도' 등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관음도가 그려졌다. 그리고 2017년, 우리는 또 다른 수월관음도, 백의관음도, 유희관음도를 본다. 김민서의 관세음보살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김민서 화가는…

개인전 4회와 다수의 초대, 단체, 기획전, 해외 기획전을 열었다. 동국대학교대학원(불교미술석사)을 졸업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울산미술협회 회원이며 지원불교미술연구소 원장으로 있다.

웰메이드 다큐로 한해 마무리를

BTN, 고품질 다큐 2선 방영

번잡한 연말을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로 마무리하는 것을 어떨까.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은 연말을 맞아 다큐멘터리 2선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두 작품 모두 공익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작(秀作)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2부작 다큐인 '시민의 터전, 서울 한양도성'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성곽 중에서 세계 최장 기간 도성 역할을 했고 남아있는 수도 도성으로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한양도성의 가치와 생명력을 재발견하며, 시대를 거치며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방영되는 '나를 찾는 마음여행-명상'은 올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이다.

불교의 철학과 가르침의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명상 대중화의 실태와 현장이야기 생생히 담았으며, 한국·미국의 명상전문가들의 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수잔 리 멕도널드가 동행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판화공모전, 배남경 '빛길-색' 대상

12월 24일 시상식… 고판화박물관서 1월 말까지 전시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전통판각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원주 전통판화공모전에서 현대 목판화 중견작가인 배남경(55)의 목판화 '빛길-색, Red and Road'가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빛길-색, Red and Road'은 다색목판화이지만 여러 색판을 쓰지 않고 단 하나의 판을 점증적으로 제판하면서 인출하는 일판소거법을 사용해, 7~8차례의 제판과 수십 차례의 인출작업을 거듭하여 회화와 같은 공간감과 깊이를 보여준다.

국내 유일의 전통판화 공모전인 제5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에는 전통판화, 창작판화, 생활판화 3개 분야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4회 연속 전통판화 부문이 대상을 받았던 전통을 깨고, 현대 목판화작가들의 창작판화부문에서 대상이 나와 앞으로 현대 목판화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게 했다.

창작판화와 전통판화 등 전문작가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판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화예술에 심취한 일반인들의 참여로 우수한 작품 100여 점이 접수되었으며, 1년 동안 생생문화재사업 전통판화학교 학생들과 템플스테이로 진행된 숲속판화에서 기량을 닦은 수련생들도 생활분야에 참여했다.

전통판화부문 최우수상인 강원도지사상에는 국가 인간문화재 106호 각자장 이수자로 다양한 전통판각을 전승하고 있는 한병옥 작가의 '비로자나 설법도'가 선정됐으며, 원주시장상인 우수상에는 현대 목판화작가인 이언정의 'City 7'과 생활판화부문 전진은 작가의 '문수보살상'이 선정됐다.

고판화박물관장상에는 맹창균 작가의 '오륜행실도'와 박보경 작가의 'Tranguil', 중앙대 김건희 학생의 '관심주기', 경성대 권수진 학생의 '용기라는 의미 2'가 선정됐다.



최우수상-한병옥 作 '비로자나설법도'

수상작품은 12월 24일부터 고판화박물관 전시실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전시되며, 시상식은 개막식 당일 11시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BBS 라디오, 하반기 개편 방송 시작

12월 4일부터… '밤의 창가에서' 등 새 편성

BBS불교방송(선상신 사장, 이하 BBS) 라디오가 하반기 개편을 진행하고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12월 4일부터 이뤄지는 하반기 개편에는 '이지형의 밤의 창가에서'(평일 밤10시~12시)가 새롭게 편성돼 눈길을 끈다. '밤의 창가에서'는 과거 가수 故 김광석이 진행했던 인기프로그램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토이'의 객원보컬이었던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지형이 '밤의 창가에서'의 새 DJ가 돼 청취자들을 만난다.

불교적 안목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BBS 화쟁토론'(금요일 오전8시~9시)도 주목된다. 'BBS 화쟁토론'은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화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BBS불교방송만의 시사프로그램이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의 진행으로, 매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주말 생방송 실시로 청취자와의 소통도 확대된다. 새로 신설된 '오늘은 라떼처럼'(토,일 저녁7시~9시)은 따뜻하고 사려깊은 음악과 이야기로 꾸며진다.

기존 인기프로그램들도 방송 시간대를 확대해 청취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BBS 간판 종합뉴스인 'BBS 뉴스파노라마'는 기존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평일 오후 6시~6시40분까지로 확대되고, 'BBS경제토크'도 토요일 오후6~6시40분까지, 'BBS뉴스와 사람들'도 일요일 오후6시~6시40분까지 방송된다. 이에 따라 매일 오후6시30분에 시작하던 저녁예불은 10분 늦춰진 오후 6시40분부터 7시까지 매일 방송된다.

BBS인기 프로그램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1부'는 기존 월~목에서 월~금으로 방송요일이 늘어난다.

이번 개편에 대해 BBS는 "변화하는 포교 패러다임에 발맞춘 특화된 콘텐츠가 청취자들에게 깊은 재미와 감동은 물론 시대의 흐름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12월 야간개장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매주 수요일 야간 개장 시간(21:00까지)에 박물관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금동반가사유상과 불복장 등 불교관련 상설전시장에서도 진행된다.

2017년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와 7시,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상설전시실과 특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설전시관 프로그램에서 '600년경에 제작된 금동반가사유상(불교조각실, 12/6)', '불복장 직물의 색과 방위(고려실, 12/13)'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별전 프로그램으로는 새롭게 개막하는 특별전 〈예르미타시박물관전,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2017.12.19.~2018.4.15.)〉의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7~20세기 초까지의 프랑스 미술의 흐름과 러시아인들이 사랑했던 프랑스 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박재완 기자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 원 불 사